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기대감'

###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전부개정안 대체 법안 특별자치도 추진에 필요성 인정  
김관영 지사, "법사위·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전북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한병도위원과 정운천의원, 그리고 윤준병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통해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사진 3면>

통과된 법안에는 전북도의 강점인 농생명성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전문분화·분류라는 강점을 활용한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등을 통해 유망형의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되어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동안 소위 심사까지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없도록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했으며, 여기에 김관영 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전개로 힘을 보탰다.

특히, 전남 500만 전북인 한마음 대회에서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국민지원위원회, 도내 대학교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건의하는

등 의기투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소위 회의장 앞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중훈 경제부지사, 정운천·한병도 의원이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논의에 즉각 대응하며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법안 의결 직후, 김 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국회 절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알맹이가 콕 찌르고 명실상부한 전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며, "법사위·본회의까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조문들이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겨울 앞두고 분주한 연탄공장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2일 전주의 어느 연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연탄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이

## 전주에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유치

만성지구에 청사 신축... 4개 시도 6개 국립공원 관할  
전북도, 공단 직제 개편 동향 파악 후 유치활동 전개

전북도는 호남권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를 전북 전주시로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4개 지역본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중간 조직으로 전북에 들어서는 서부지역본부는 내장산, 다도해 해상, 덕유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을 관할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1월 국립공원공단 직제 규정 개편 동향을 파악하고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펼쳐 왔었다.

이후 도는 올해 6월 서부지역본부의 전북 유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국립공원공단,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청사신축 추진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는 앞으로 관할지역 공원 내 대규모 공원사업 직접 추진, 지역인재 육성, 기업과 상생 ESG 경영 활동 지원, 지역 문화 행사 개최 등 전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지역본부 청사는 오는 2027년까

지 국비 약 200억 정도가 투입돼 시내·외권과 접근성이 좋은 전주 만성 지구에 건축되며 자연환경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7월부터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준비단(T/F)이 경제통상진흥원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토지매입, 건축설계,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40여명이 전주로 이전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 보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며 "4개의 국립공원을 보유해 천혜의 자연 유산을 간직할 전라북도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더욱 지속 가능한 자연유산 관리를 통해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연말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도모

도, 직장인 대상 '전북사랑 기부 캠페인' 전개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답례품 혜택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전북사랑기부 캠페인.

전북도가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도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북사랑 기부 캠페인' 활동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기관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널리 알려, 도내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홍보 부스를 설치해 홍보물 배부, 내달 15일까지 진행 중인 '고향사랑기부 1+1 이벤트' 안내 등 열띤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전북도의 다양한 답례품에 흥미를 보이고 특히 타·시도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기존 혜택에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 1+1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며 전라북도 도청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도는 남은 40여일간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도내·외 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직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모금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본격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며,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많은 분들의 꾸준한 지지와 관심이기 때문에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

부제 알리기에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 즉 3만원 상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고향사랑은(www.ilovegohyang.go.kr) 사이트와 전국 NH농협을 방문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도, 신임 정무수석에 유창희·대변인에 임청 임명

전북도가 신임 정무수석에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대변인에 임청 전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대 무역학과와 전주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를 나온 유창희 신임 정무수석은 6~7대 전주시의원(7대 부의장), 8~9대 전북도의원(9대 부의장), (재)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국민생화체육 전북 축구연합회장, 전주대 총동창회 부의장, 전주시 체육회 부의장 등을 지냈으며, (주)교차로 신문사 대표이사·회장을 맡고 있다.

임청 대변인은 전주 동양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전주 신문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과 전북기자협회



유창희

임청

회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재훈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익산시

# 왕궁 보석드라마관광지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 #다이노키즈월드 #익스트림 슬라이드